

Integral Interpretation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Seongagwigam*(『禪家龜鑑』)

Joonhee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ly understand *Seongagwigam*, the most famous work of Cheongheo Hyujeong who is a representative monk of the Joseon. For this, I examine the entire part of *Seongagwigam* with the research history review.

[CONTENTS] This study examines the *Seongagwigam* through two main research contents. Firstly, it reviews existing research papers about *Seongagwigam* and trends in the field. Secondly, it analyses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ext by dividing its subjects and exploring its character from a new perspective. It finds that the Hyujeong emphasizes not only the integration of Seon(禪) and Gyo(敎) or ‘Relinquishing Gyo and Entering Seon(捨敎入禪)’, and investigating the phrase of Hwadu(話頭), but also the practice theory aspect of Buddhist practic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at previous research provided preliminary steps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e theory” and confirms that the purpose of Hyujeong was the social spread of practice. The study concludes that *Seongagwigam* has timeless value and proposes further research to popularize it in a modern way, as it could serve as a model for the trend of current Korean Buddhism.

[KEY WORDS] *Seongagwigam*, Cheongheo Hyujeong, Relinquishing Gyo and Entering Seon (捨敎入禪), Divide Subjects, Practice Theory

^{*} **Corresponding to** Joonhee Kim (Lecturer, Institute of Liberal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pianistjkim@in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선가귀감』의 구조 분석을 통한 통합적 이해

김준희

국립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청허 휴정의 대표작인 『선가귀감』의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선가귀감』 문헌의 전체를 고찰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선가귀감』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룬다. 첫째, 『선가귀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연구 경향을 살핀다. 둘째, 『선가귀감』을 ‘과목나누기’를 통해 문헌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하고 문헌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선교통합이나 사교입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선교론과 화두참구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청허 휴정이 선수행의 실제적인 측면인 수행론 또한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론] 본 연구는 ‘과목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논점들은 수행론을 위한 예비적 성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허 휴정의 편찬 의도는 수행의 사회적 확산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연구를 토대로 『선가귀감』은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현실에도 귀감이 될, 청허 휴정의 시대를 초월하는 해안이 담긴 문헌임을 알고, 더욱 폭넓은 새로운 연구와 함께 이를 현대적으로 대중화시키는 일에 힘쓸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선가귀감, 청허 휴정, 사교입선, 과목나누기, 수행론

I. 들어가며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은 조선 시대의 손꼽히는 고승으로 대표적인 저작이 『선가귀감』이다. 『선가귀감』은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가르침을 선집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각종 경론과 어록에서 수행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Kim, 2013: 6) 편저로써, 많은 수행자들이 이 책을 통해 수행의 요체를 배워왔다(Lee, 2014: 215).

『선가귀감』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 선(禪)과 교(敎)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선교통합의 과정으로 보조국사 지눌 이후 줄곧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특징과 연결된다. 이는 박종홍의 “지눌에 이르러 선과 교를 아우르는 한국불교의 포괄적인 수행체계가 완성되었다”(Ko, 2013: 65-66)는 말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청허 휴정의 입장은 선을 우위로 하여 교학과 염불을 포용하는 선교관(Jung, 2020: 529)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종종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H7: 635b)¹⁾.”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에 대한 통합적, 혹은 융합적 입장은 9세기의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Inkyoung, 2006: 97). 규봉종밀이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비판한 내용은 그의 저서 『도서(都序)』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불교계가 선교가 대립되어 ‘강(講)하는 자는 오직 점교(漸敎)만을 선양하고, 선(禪)하는 자는 돈종(頓宗)만을 편협하게 전한다(T.48, 399a).’²⁾라고 비판하면서 양자의 갈등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규봉종밀과 보조지눌의 선교통합의 입장은 조선시대의 청허 휴정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청허 휴정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보다는 선을 중시하는 입장(Kim, 2018: 156)에서 선교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허 휴정의 선과 교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사교입선, 즉 방하교의(放下敎義)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Kim, 2018: 158).

한편 『선가귀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교입선과 화두참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염불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이 청허 휴정의 사상을 살펴보면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가귀감』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선가귀감』 전체를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파악하고 그 구조를 ‘과목나누기’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의

1) “世尊三處傳心者 爲禪旨 故曰禪是佛心 敎是佛語”. 이 내용은 규봉종밀의 『禪源諸詮集都序』에도 나온다. “經是佛語, 禪是佛意. 諸佛心口必不相違, 諸祖相承根本是佛親付”

2) Inkyoung(2006: 97)에서 재인용. T.48, p.400b의 내용인 “經是佛語, 禪是佛意. 諸佛心口必不相違, 諸祖相承根本是佛親付”가 바로 『선가귀감』에서 말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의 내용이다.

연구는 『선가귀감』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주로 논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 편찬 의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3장에서 ‘과목나누기’를 통해 『선가귀감』의 내용을 구조화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선가귀감』은 수행의 지침서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편찬 당시 조선시대의 불교계를 돌아볼 수 있는 문헌이며, 동시에 오늘날의 수행풍토를 반성해 볼 수 있는 반면교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구체적인 행법을 수행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심신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 등을 수행 혹은 수양이라는 말로 표현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양에서 전래된 meditation을 명상으로 소개하면서 대중성을 넘어 전문성의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수행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에 훨씬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불교의 실천방법론을 수행이라고 해야 할까, 명상이라고 해야 할까. 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요즘 명상이라는 말은 ‘탈종교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탈불교화’를 기반으로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권위있는 명상 프로그램들은 거의 모두 불교의 사띠(sati, 念)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프로그램들은 탈불교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Jang, 2021: 241; Jang, 2015: 445)이 현실이다.

지상과 및 개인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와 언론에서도 명상을 다룰 때, 불교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한 경우가 많으며³⁾,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혹은 수련 센터에서도 불교 호흡 명상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도, 명상이 불교와 무관한 것처럼 치부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이는 명상이 상업화되면서 일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명상의 불교적 정체성 회복 역시 현재 한국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선가귀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가귀감』은 조선불교계의 현실을 반영한 책이다. 송유억불의 엄중한 현

3) <https://woman.donga.com/3/search/12/131417/1> 명상과 호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찰명상’과 ‘집중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원이 불교의 수행법에 근거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실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늘날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선가귀감』은 훌륭한 교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선가귀감』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수행론적 관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풀어가기 위해서 필자는 『선가귀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국내의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RISS와 KCI를 통하여 관련 연구를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 검색 방법 및 결과

검색의 조건으로 발행연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검색어는 ‘선가귀감’과 ‘선가구감’으로 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검색하였다. RISS에서는 자체 중복제거 후 모두 35편의 논문이, 그리고 KCI는 20편의 논문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1> 검색대상과 검색일
<Table 1> Searching Subject and Date

검색대상	검색키워드	논문발행기간	검색일
RISS / KCI	선가귀감, 선가구감	전체	2022.12.1

RISS와 KCI 검색 결과 중 비논문 4편을 제외한 55편 중 양 검색에서 중복된 21편을 제외하면 34편이 된다. 이 중에서 『선가귀감』을 주제로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언급만 한 논문 20편을 제외하였다. 이상의 논문 배제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비대상 논문 제외 및 중복제거 과정
<Table 2> Process of Removing the Inappropriate Papers and the Duplicates

검색 대상 키워드	선가귀감	선가구감	제외 편수	제외 이유	중복 제거	선가귀감이 주제가 아닌 논문	최종분석 논문 편수
RISS	38	3	3	학술대회 발표문 1 서평 1, 단행본 1	21	20	14
KCI	21	0	1	단행본 1			
합계	59		55		34		

34편 중 제외된 21편 중 10편은 『선가귀감』을 단순히 언급했을 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나머지 3편은 『선가귀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선가귀감』 자체에 대한 연구, 혹

은 내용 분석이 아닌 것으로 불화 관련 논문(강소연), 국어 논문(백두현), 경봉 스님 연구(정유진)가 있다. 그리고 청허 휴정의 선사상 관련 연구 논문은 4편, 청허 휴정의 염불관 관련 연구는 4편, 그리고 『선가귀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한 논문이 12편이다. 그래서 총 20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4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14편의 논문리스트
<Table 3> List of the Papers

제목	저자	연도	학술지
선가귀감의 간행 유포고	우정상	1977	불교학보
선가귀감언해에 나타난 파생접사고찰	손은경	1977	한국어문학연구
청허 휴정의 선교이해	고영섭	1982	한국불교학
선가귀감 언해본의 서지와 어학적 고찰	김영배	1992	세종학연구
선가귀감 언해본 해제	김영배	1992	동악어문학
선가귀감에 나타난 선과 염불의 조화	강신보	2003	한국선학
서산대사의 선가귀감과 영시 비교연구	고길환	2007	동서비교문학저널
조선후기 불교문헌의 가치와 선과 교의 이중주	김용태	2014	보조사상
청허 휴정의 선교관 및 수증관	김호귀	2015	범한철학
휴정의 사교입선관	신법인	2016	한국사상학
일본에서 『선가귀감』 간행과 그 영향	오가와 히로시	2017	불교학보
자력과 타력의 양립문제	전준모	2018	보조사상
천태의 십승관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간화선	이병옥	2018	한국사상학
선가귀감과 현대적 수행의 일고	박기남	2020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 논문 내용 분석

여기에서는 14편의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필자가 논문을 검색하고 분석하면서 청허 휴정 혹은 『선가귀감』을 주제로 한 단독 혹은 전문 학술대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또한 특정 학술지에 『선가귀감』에 관한 논문이 집중적으로 실린 경우도 없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국불교의 특징을 선교통합적 관점이라고 볼 때, 이를 계승한 이가 바로 청허 휴정이다(Kim, 2015: 72; Jung, 2018: 173). 그리고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텍스트 중 하나가 『선가귀감』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가귀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며 그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학 논문이 아닌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14편의 논문 중, 손은경의 논문과, 김영배의 두 논문은 언어학 및 국문학에 관련된 논문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길환의 논문은 시를 통한 동서양의 사상을 비교하는 논문이고, 오가와 히로시의 논문 역시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뤄진 논문이라 각각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아홉 편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겠다. 아래에서는 각 논문의 주요 논점을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 ① 우정상의 논문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선가귀감』 연구 논문으로, 텍스트 전체를 분석한 가장 정통한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 2장은 『선가귀감』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3장 이후는 판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② 고영섭은 청허 휴정의 선지와 교문에 대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선교분기(禪敎分岐)라는 말을 통해 교는 선의 배경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으며, 이것이 청허 휴정의 사상적 기반인 선교겸수의 전 단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임제 태고의 법통을 강조하면서 법통과 법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③ 강신보는 『선가귀감』 안에서 이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선과 염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연구하며, 청허 휴정의 선사상의 요지를 고찰하고 염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선과 염불이 어떠한 형태로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 ④ 김용태는 논문에서 규장각 소장 of 불서들을 분석하면서 『선가귀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사교입선(捨敎入禪)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을 선행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청허 스님의 핵심 사상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김용태는 이 용어가 청허 휴정 스님이 직접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문헌에 등장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⁵⁾
- ⑤ 김호귀는 기존의 선교차별의 주장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선가귀감』, 『선교석(禪敎釋)』, 『선교결(禪敎訣)』을 통해 청허의 선교 융합이 선주교종(禪主敎從)이라는 형태로 변천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청허의 선주교종의 입장은 선교차별이면서도 선교융합의 명분을 교학에 근거한 선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한다.
- ⑥ 신법인은 청허 휴정의 선교관이 철저히 사교입선의 관점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청허 휴정의 선교관이 철저히 사교입선이면서도 교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며, 교를 선에 들어가는 방법론으로 긍정하고 있다.
- ⑦ 이병옥은 천태의 심승관법을 중심으로 『선가귀감』을 선교의 관점에서 비교하고(先敎後禪), 이를 바탕으로 화두참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천태의 심승관법을 조목조목 『선가귀감』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5가지 관점에서 이 둘의 유사성을 기술하면서 간화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다.
- ⑧ 전준모는 휴정이 참선과 염불을 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문의 참선과 타력문의 염불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자체가 애초에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휴정이 불이(不二)의 의미

4) 예를 들어, Kim(2015), Ko(2017) 등이 있다.

5) Kim(2018: 157) “문제는 휴정이 『선가귀감』이나 다른 저술에서 사교입선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으며,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 전적에서도 사교입선이라는 용어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사교입선은 조선의 19세기 자료에 몇 건 나올 뿐인데...”

를 일심(一心)과 같은 표현에서 찾으며, 모든 이론적인 근거가 일심에 있음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 ⑨ 박기남은 『선가귀감』에 나타난 6바라밀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그는 우선 보시, 지계, 인욕과 간경, 주력, 염불을 수행의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간경은 지혜로, 주력은 정진으로, 염불은 선정으로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6바라밀 수행과 동일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6바라밀의 내용보다는 삼학의 체계를 제시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으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어, 다소 논리적 구성이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상 아홉 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선가귀감』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구조를 살펴보았다기 보다는 휴정의 선과 교의 관점을 선교후선(先敎後禪)의 입장 혹은 사교입선(捨敎入禪)의 관점에서 고찰하거나 화두참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강신보의 연구는 염불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그는 염불과 선의 관점을 심(心), 혹은 진심(眞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고, 염불과 선을 조화의 관점으로 파악한 것이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준모의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논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연구는 한태식(보광)의 『서산대사의 정토관』(2013)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산대사는 적극적으로 타방정토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근기자들을 위한 유심정토 또한 제시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⁶⁾ 필자는 한태식의 연구가 보다 명료하게 휴정의 염불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박기남의 경우는 6바라밀을 언급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외에 나머지 세 바라밀을 간경, 주력, 염불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다소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필자 역시 『선가귀감』에 나타난 수행론의 특징을 6바라밀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선가귀감』의 내용을 분석해야 6바라밀의 전체 모습이 보이게 된다. 이는 이후 필자가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정상 논문을 제외한 연구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선교후선(先敎後禪)이나 사교입선(捨敎入禪)의 관점에 주목한 연구
- ② 화두 혹은 화두 참구에 주목한 연구
- ③ 염불과 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14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판본과 관련된 논문과 서지학과 국어학 관련 논문을 제외한 9편의 논문의 주된 흐름은 위의 세 가지이다. 우정상 논문은 유일하게 『선가귀감』 전체에 대한 연구

6) 필자가 한태식(보광)의 논문을 제외한 것은 『선가귀감』이 중심이 된 연구라기보다는 『三家龜鑑』, 『心法要抄』, 『淸虛堂集』 등에 나타난 염불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다. 그는 휴정이 저술한 동기를 당시 불교계의 학풍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 그리고 판본의 종류와 판각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선조 12년(1579) 사명 유정 등에 의해 간행된 기묘판(己卯版)이 초판본이라고 밝히고 있다(Woo, 1977: 164). 그러나 이 판본은 일본에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금화도인(金華道人)이 국역본(언해본)을 간행한 것은 국민의 사상정화 운동과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청허 휴정과 금화도인의 사상적 공통점이라고 하고 있다(Woo, 1977: 168). 그리고 금화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나름의 과목나누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선가귀감』 전체를 ① 원리론 ② 불조론 ③ 선교론 ④ 방법론 ⑤ 결론으로 과목을 나누고 있다(Woo, 1977: 163).⁸⁾ 즉 선행연구 가운데 『선가귀감』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는 우정상의 논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III. 과목나누기를 통한 『선가귀감』의 새로운 이해

1. 과목나누기의 필요성

필자는 텍스트 이해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 과목(科目) 나누기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목은 텍스트 내에서의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텍스트에 대한 내적 구조 분석과 가치평가가 과목을 나누는 사람(科主)에 따라서 달라진다.⁹⁾ 이는 『선가귀감』 전체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가귀감』의 경우 과목 나누기가 다소 어려운 체제를 갖는다. 이는 『선가귀감』이 특정한 논리를 제기하는 논서의 성격보다는 청허 휴정이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가귀감』의 과목을 나눌 때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선가귀감』은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선승들의 선적이나 경전 등에서 후학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문구를 뽑아 놓은 선집(選集)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이유로 이 텍스트

7) Ko(2006: 67-68)는 저술 의도를 더욱 상세히 논하고 있는데, “당시 불자들의 공부 행태”에 대한 비판이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8) 한편 Ko(2006: 165-166)는 우정상의 미발표 논문을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5과목으로 나누었지만 후에는 8과목으로 나누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과목을 “1) 직거본분문(直舉本分門, 原理論) 2) 불조사체문(佛祖師體門, 佛祖論) 3) 선교문(禪教門) 4) 방법지도문(方法指導門) 5) 신해문(信解門) 6) 수증문(修證門) 7) 실증묘득문(實證妙得門) 8) 총결문(總結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논문 각주 21번을 참조하면 된다.

9) Kim(2009: 85) “과목 나누기는 크게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그리고 유통분(流通分)으로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Kim(2014: 124)의 내용도 참고하면 좋다.

트는 다른 저서와 같이 완벽한 서론-본론-결론의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휴정 스님은 문구를 선정하여 배열할 때 대략적으로 서분-정중분-유통분의 형식을 따랐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해석서에는 연구자의 방식대로 본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에서 다른 우정상의 논문에서는 『선가귀감』 전체를 다섯 장의 과목으로 나누었고, 원리론, 불조론, 선교론, 방법론, 결론(Woo, 1972: 163-164)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앞에서 분석한 아홉 개의 논문 중 유일하게 ‘과목’을 언급하며 구성을 다루었다. 『정선 휴정』(김영옥 번역)에서는 ‘일물, 교외별전, 선교의 동이점, 화두참구와 그 요소, 마음의 근원, 실천의 조목, 염불, 경전의 인연, 수행에 대한 정책과 바른길, 병통과 화두의 본질, 각 종파의 법계와 법문의 특징 및 임제종지, 방과 할의 본질, 맺음’으로 나누고 있다. 『선가귀감』(김호귀 번역)에서는 ‘본분과 신흠, 선교의 차별, 화두의 참구, 신흠의 자세, 수행의 기초, 수행의 방편, 출가의 정신, 선종의 오가, 무집착과 무분별’로 나누고 있다. 또한 통광 스님은 강론¹⁰⁾에서 ‘원리론, 불조론, 선교론, 심성을 깨치는 방법(수행론)’으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은 분류들은 과목을 통한 분류이기는 하나, 연구자별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정상의 경우 다섯 과목으로 간략하게 구분하고 있는 반면, 김영옥의 경우 열세 과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김호귀의 경우 아홉 개의 과목으로 나누었는데, 전체 81장으로 구분한 한국불교전서와는 달리 103장으로 구분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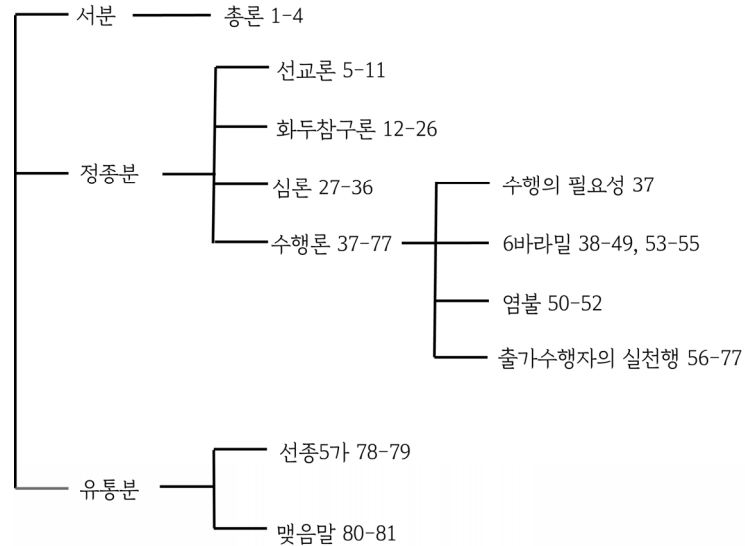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는 필자의 과목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선가귀감』 이해의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목나누기를 통한 『선가귀감』의 구조 분석

필자는 『선가귀감』 전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본문을 한국불교전서 및 C-BETA를 기준으로 그 순서에 따라 주해가 아닌 본문을 기준으로 ‘장’으로 분류하면, 총 81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를 81장으로 구분한 것은 김영옥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필자 역시 81장으로 텍스트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목나누기를 하였다. 과목나누기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선가귀감』 전체를 서분-정중분-유통분의 구조에 따라 서분은 1장부터 4장, 정중분은 5장부터 74장, 그리고 유통분은 78장부터 81장까지로 구분하였다.

10)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24>. 2004년 6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봉은사에서 강좌가 진행되었다. 강좌 내용은 불교신문에 연재되었다.



[그림 1] 『선가귀감』의 구조
[Figure 1] The Structure of *Seongagwigam*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은 일물(一物)을 중심으로 한 총론으로 볼 수 있으며, 『선가귀감』을 시작하며 법성(法性) 혹은 佛性(불성)을 한마디로 집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은 크게 선교론(禪敎論), 화두참구론(話頭參究論), 심론(心論), 수행론(修行論)으로 구분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유통분에서는 선종의 5가를 열거하면서 임제종 중심의 법통을 제시한 후, 끝맺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는 일물이란 조사선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청허휴정은 이 ‘일물’을 서분에서 언급함으로써 이 책의 성격이 조사선의 공부방법론을 확립하는데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im(2010: 27)이 해제에서 밝힌 ‘일물(一物)’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좋다.¹¹⁾

정종분의 시작은 선교론이다. 선교론은 말 그대로 선과 교에 대한 부분이다. 선과 교는 모두 부처님의 종지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본질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단적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禪是佛心 敎是佛語(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H0138: 635b)이다. 여기에서 붓다의 마음은 곧 붓다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결국 붓다의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교(敎)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깨달음[心]과 언어[敎] 중 어느 것이 핵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깨달음[心]’이다. 그런데 휴정은 다시 선은 조사로, 교는 부처로 배대함으로써 선과 교를 차별한다.

11) 이에 대해서는 Kim(2010: 27)이 해제에서 밝힌 ‘일물(一物)’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좋다.

<표 4> 선교론에 나타난 선과 교의 구조

<Table 4> The Structure of Seon(禪) and Gyo(敎) in Theory of Seon-Gyo(禪敎論)

a				b		
붓다의 깨달음	마음	선법	견성법	조사삼구	현어심원 (顯於心源)	불설무애지법 방귀일미 (佛說無礙之法 方歸一味)
붓다의 가르침	언설	교법	일심법	제불설법	설필경공 (說畢竟空)	불차일미지적 방현조사소시일심 (拂此一味之迹 方現祖師所示一心)

a는 선과 교가 붓다로 귀결되는 구조이고, b는 조사와 붓다로 차별되는 구조이다. 휴정은 이 둘을 선교론에서 모두 언급하면서, 결국은 조사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선교론을 끝맺는다.¹²⁾

<표 5> 화두참구론의 구성

<Table 5> Chapter of Hwadu Investigating the Phrase's Contents

화두참구의 대원칙	화두참구 방법	화두 점검
12	13-24	25-26

필자는 12장부터 26장까지를 화두참구론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앞서 선교론에서 “선지를 상세히 참구해야 한다(叅詳禪旨).”로 끝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두 참구의 의미와 방법론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화두참구론은 <표 6>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6> 화두이문

<Table 6> Two Gates of Hwadu

화두	참구문	경절문	활구	마음의 작용과 언설의 작용을 초월
	참의문	원돈문	사구	이치와 언설을 통해 이해

12장을 화두참구의 대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여기에서 “須叅活句 莫叅死句(모르지기 활구를 참구하지, 사구를 참구해서는 안된다)”(H0138: 636b)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화두참구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평에서 칭혀 휴정은 화두에 이문(二門)이 있음을 설명한다(H0138: 636b).

화두참구론의 마지막을 25장과 26장으로 한 것은 명안종사를 찾아 점검을 받는 것¹³⁾과 다만

12) “然後放下教義 但將自心 現前一念 叅詳禪旨”(H0138: 636b)

13) “須訪明師決擇正眼”(H0138: 638b) 이것은 화두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화두참구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후에 점검을 통하여, 즉 스승을 만나 인가(印可)를 받아 법맥을 올바르게 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안목의 바른 것을 귀하게 여길 뿐 행리를 귀하게 보지 않겠다¹⁴⁾는 것을 모두 화두 점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혜선사가 이참정 한로에게 답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인연따라 비워 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머물고·앉고·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생사심(生死心)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¹⁵⁾

위 인용문에서 대혜선사는 이참정 한로에게 행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바라보는 안목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참정의 대답은 바로 그의 ‘행위를 바라보는 안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장부터 36장까지는 수행자의 자세와 마음의 근원을 다루는 ‘심론’ 부분이다. 이는 화두수행에 대한 방법을 상세히 밝힌 뒤의 내용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마음의 공성(空性)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 수행을 하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다양한 번뇌를 일으키지만 마음은 그저 고요할 뿐(當處便寂)이다. 마음의 고요함을 일심(一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거짓이라고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한 것이다(離幻即覺).

<표 7> 미혹한 마음과 일심의 내용
<Table 7> Delusion Mind and One Mind

	미혹한 마음의 내용			
미심수도 단조무명 (迷心修道 但助無明)	비굴하거나 뽐내는 마음	범부라는 생각	중생심	번뇌를 제거하려는 마음
일심 (一心)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가 일어나는 곳	환(幻)인줄 알면 곧 [번뇌에서] 벗어남		

이것을 원효는 “일심의 근원은 유무를 떠나 홀로 해맑고 깨끗하다(Kim, 2006: 70).”고 표현했다. 그리고 김형효는 원효의 일심의 근원을 공(空)으로 해석하고 있다(Kim, 2006: 75). 결국 휴정 스님은 심론에서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망견(妄見)이고(35장), 열반[滅度]을 증득한 중생이 없다(36장)는 것으로 마음의 공성을 들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까지를 심론으로 보았다.

정종분의 마지막 부분인 수행론은 37장부터 77장까지로 다소 길다. 필자는 수행론을 다시 상세하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 부분은 청허 휴정 스님이 『선가귀감』을 발간한 목적을

14) “只貴子眼正 不貴汝行履處”(H0138: 638b)

15) 『대혜보각선사서』 제25권 11. Kim(2011: 257)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제하였다.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가귀감』이 선수행의 지침서라는 의미에서 수행론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행론은 ① 수행의 필요성, 육바라밀, 염불, 출가수행자의 실천행'의 네 가지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37장은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理雖頓悟 事非頓除’ 즉, 이치는 바로 깨달을 수 있으나, 번뇌 혹은 습관과 버릇에서 비롯된 그 업은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돈오돈수가 아닌 돈오점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수행의 목적은 분명 돈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돈오로 모든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청허 휴정은 말하고 있다. 그것이 ‘사비돈제(事非頓除)’이다. 깨달았다고 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혹은 습관으로 남아 있는 번뇌의 찌꺼기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수행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능엄경』의 한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치(理)적으로는 단박에 깨달으니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들이] 사라지지만, 실제(事)적으로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고 차례로 없어진다(理則頓悟乘悟併銷 事非頓除因次第盡)(T.19, p.155a).

돈오점수는 따라서 깨달음은 단박에 증득하지만, 이후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nkyoung, 2005: 18).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를 제거해야 할 번뇌가 남아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점수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점수의 또 다른 의미로서 필자는 “깨달음을 이 사회에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붓다의 삶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붓다는 35세에 무상정등각을 성취한 후 45년간 교화행을 펴셨다. 이것을 ‘점수’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필자는 점수에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선가귀감』의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출가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생사를 면하고자 함이며, 번뇌를 끊고자 함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잇고자 함이며,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出家爲僧) 爲免生死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也(H0138: 641b)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고, 점수의 두 측면을 명확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점수의 두 가지 이해
<Table 8> Different Interpretation of Gradual Cultivation(漸修)

A		B	
위면생사야 (爲免生死也)	위단번뇌야 (爲斷煩惱也)	위속불혜명야 (爲續佛慧命也)	위출삼계도중생야 (爲出三界度衆生也)
(번뇌의 소멸을 위한) 수행의 필요성		깨달음의 실현 과정	

따라서 청허 휴정은 점수를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선가귀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수 이해의 특징이다.

이제 다음으로 대승불교 수행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바라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 가운데 『선가귀감』의 바라밀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Park, 2020), 『선가귀감』의 장을 각각의 바라밀에 배대하여 설명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선가귀감』에는 6바라밀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용어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텍스트 내에서 6바라밀을 찾아내는 것 또한 『선가귀감』의 수행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정리해 제시한다.

<표 9> 수행론에 나타난 6바라밀
<Table 9> Six Pāramitās in Theory of Practice

	“『선가귀감』”해당 장
보시바라밀	46
지계바라밀	38~41 ¹⁶⁾
인욕바라밀	47, 48
정진바라밀	49
선정바라밀	42~45
지혜바라밀	53~55

위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은 『선가귀감』에서 그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혜의 경우는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선정과 관련된 4개의 장에서 44장과 45장의 경우는 선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정바라밀과 연관지어 생각하기가 다소 어렵다. 42장과 43장은 선정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그러면 44장과 45장의 내용이 선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자.

44 : 見境心不起(H0138 : 639c) -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45 : 心法本寂(H0138 : 640a) - 마음과 현상이 본래 고요한 것

선정은 초기불교 이래 불교의 핵심 수행법으로 전해져 왔다. 선정은 단순히 집중의 상태를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접촉에서 발생하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전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에 묶이고 닳을 잃고 탐착하여 위험을

16) 41장의 내용은 “欲脫生死 先斷貪欲及諸渴愛”인데, 이를 청허 휴정은 “佛云淫心不除 塵不可出(H0138 : 639c)”로 불음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자량의 논문에서 음욕법에 대한 것을 바라미죄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Lee, 2011: 287).

보지 못하고 여움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탐닉하면, 그들은 불행에 이르고, 파멸에 빠지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된다(MN.I, p.173. Jeon, 2009: 350).”라고 설한다. 『선가귀감』의 ‘경계를 보고(見境)’에서 말하는 경계는 ‘색성향미촉’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고(見)는 ‘안이비설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둘이 만날 때, 즉 6내입처와 6외입처가 만나는 것을 ‘촉(phassa)’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45장의 심(心)과 법(法) 역시 각각 6내입처와 6외입처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선정과 연결될까.

선정을 이해할 때, 예비단계로 설정된 것이 오개의 제거이다(DN.III, pp.49-50). 오개(五蓋; pañca nivarāṇi)란 ‘1) 감각적 욕망(kāmacchanda), 2) 성냄(byāpāda, 악의), 3) 혼침과 졸음(thīna-middha), 4) 들뜸과 회한(uddhacca-kukkucca) 그리고 5) 회의적 의심(vicikicchā)’의 다섯 가지이다. 여기에서 kāma를 ‘성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욕구’로 이해하면, 까마를 비롯한 5가지 번뇌를 지닌 채로는 선정 수행은 불가능하다.¹⁷⁾ 그리고 선정 상태를 성취하게 되면 이제 마음과 현상이 고요해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4장과 45장은 분명 선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바라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6바라밀은 사실 지혜바라밀의 성취가 목적인 수행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혜의 성취는 곧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선가귀감』에서는 지혜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내용상 지혜바라밀로 볼 수 있는 장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53, 54, 55장의 내용이다.

聽經(H0138: 641a) - 看經(H0138: 641b) - 學未至於道(H0138: 641b)

청경과 간경은 모두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보는 것은 지혜의 획득과 관련된 것이다. 보통 지혜는 문사수(聞思修)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청경과 간경은 문혜(聞慧)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경전 중 『잡아함경』에서 삼혜(三慧)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4종의 예류성자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입니까?” 선남자를 가까이하고, 정법을 듣고, 안으로 바르게 사유하고, 법에 차례대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T.2, p.215b)¹⁸⁾

여기에서 문혜는 ‘선남자를 가까이하고, 정법을 듣는 것’을 말하고, 사혜는 ‘안으로 바르게

17) 이자랑도 “분노는 계정혜 삼학의 수행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한 정서임에 틀림없다.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마음챙김을 비롯한 불교의 명상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Lee, 2010: 238.).

18) “舍利佛白佛言：‘世尊，有四種入流分 何等爲四？’“親近善男子，聽正法，內正思惟，法次法向”

사유하는 것’을 말하고, 수혜는 ‘법에 차례대로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청경과 간경은 ‘정법을 듣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경과 간경을 지혜바라밀의 덕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학미지어도’는 수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어도(至於道)’는 법[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學)은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미지어도’는 ‘수행이 아직 완성되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경’, ‘간경’, ‘학미지어도’는 모두 지혜, 즉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들 내용을 지혜바라밀로 보는 것이 옳다.

염불을 언급하고 있는 50, 51, 52장의 내용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이는 다른 해석이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출가수행자의 실천행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출가수행자의 실천행은 앞서 살펴본 수행의 필요성과 연관해서 고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점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출가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나눈 과목에 따르면 ‘출가수행자의 실천행’은 ‘수행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용은 수행론의 총론에 해당하는 ‘수행의 필요성’에 대한 부차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출가수행자의 실천행
<Table 10> Religious Acts of Bhikkhus

범주	“『선가귀감』” 장
출가인의 마음가짐	56~61
출가인의 보시에 대한 자세	62~66
출가인의 수행	67~77

여기에서 출가수행자의 보시에 대한 자세를 무려 5장에 걸쳐 자세히 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보시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 즉 시은(施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 다음에 수행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수행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것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75, 76, 77)이다. 그리고 57장은 앞서 논의한 대로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한 37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수행론은 전체적으로 두 팔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청허 휴정이 수행론의 마지막에 ‘출가수행자의 실천행’을 배치한 것은 당시 수행자들이 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의 한국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유통분은 선종 5가를 언급한 78, 79장의 내용과 맺음말에 해당하는 80장과 81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맺음말 이전에 선종 5가에서는 임제의 범맥부터 방과 할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혔다. 범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마지막 맺음말에 해당하는 두 장은 사교입선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부처와 조사를 멀리하라는 것과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는 것은 선의 본질이 아니니 분별이나 집착을 두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서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80장과 81장의 내용이 4장의 ‘或心或佛或衆生’의 내용과(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정확히 일치한다. 이 내용은 『화엄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고, 마음, 부처, 그리고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T.9, 465c)”

『선가귀감』은 전체적으로 두괄식 구조인데, 서분은 전체를 이끄는 총론의 성격이다. 서분, 정종분도 구조상 두괄식을 취하고 있다. 청허 휴정은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이를 논증해 가는 형식으로 『선가귀감』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분과 유통분을 연결함으로써 수미쌍관의 구조를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선가귀감』은 단순히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편집한 것뿐만 아니라, 청허 휴정의 불교관, 수행관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청허 휴정은 구조적으로 논리적 완결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 책을 편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정종분의 내용 중 기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선교론과 화두참구론 뿐만 아니라 수행론의 의미를 부각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를 보여주고자 했다. 선교론과 화두참구론, 심론이 이론의 측면이라면 수행론은 실제 수행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며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가귀감』은 문헌의 특성상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편찬되었다. 암울했던 조선 불교를 일신해 보고자 했던 청허 휴정의 고민이 담긴 『선가귀감』에 관해서, 보다 실제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수행론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가귀감』이 선을 중심으로 교학적 측면을 서술하고, 다시 수행론으로 연결하는 구조라는 사실은 문헌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읽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필자가 시도한 ‘과목나누기’를 통해 『선가귀감』의 구조를 한눈에 조망했을 때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후학들은 『선가귀감』을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선교통합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청허 휴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함께 폭넓은 시선으로 스님의 뜻을 고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청허 휴정은 조선 중기 숭유억불 정책 아래 당시 무너진 한국불교를 되살리고 그 명맥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선승이었다. 『선가귀감』은 명종 재위 시 저술이 되었지만, 선조

12년(1579)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잠시 활로를 찾았던 불교는 문정왕후 사후 다시금 송유억불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가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은 당시 조선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불교가 부흥하는데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 문헌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가귀감』의 간행 동기는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처한 상황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정상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주목할만하다.

禪家들은 天真만 믿고 頓悟 後에 다시 發心해서 萬行의 修習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慨嘆한 西山大師가 敎門은 오직 一心法을 傳하는 것이고 禪門은 오직 見性法을 傳한 것임을 強調하면서 生死의 苦境을 解脫하는 올바른 길을 밝혀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Woo, 1977: 4).

우정상이 진단했듯이 청허 휴정은 만행의 수습, 즉 수행에 대한 당시 불교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가귀감』에 담긴 수행론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과목나누기’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선가귀감』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조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갖는 연구의 내용과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첫째, 수행론보다는 철학적 논의에 보다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방하교의로 대표되는 사교입선의 관점에서 청허 휴정의 선관(禪觀)을 제시하고, 연장선상에서 화두참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셋째, 청허 휴정이 주선교종(主禪敎宗)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근기론을 바탕으로 유심정토론과 타방정토론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정토관에 대한 연구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 결과는 사실 첫 번째로 모두 수렴된다. 즉 선행연구는 수행론보다는 철학적 내용에 대한 분석에 보다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선가귀감』은 시대를 통찰한 청허 휴정의 고민이 투영된 문헌이다. 때문에 철학적 내용 못지않게 수행론에 보다 중점을 두는 연구도 필요하다. ‘과목나누기’를 통한 『선가귀감』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선교론 혹은 화두참구 방법론은 수행론을 위한 선행단계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허 휴정은 올바른 수행문화의 정착을 토대로, 보시와 6바라밀 등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까지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가귀감』은 시대를 초월하는 청허 휴정의 혜안이 담겨 있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도 귀감이 될 만한 문헌이다. 그러므로 『선가귀감』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새로운 번역,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의 대중화 등에 불교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Abbreviations]

DN *Dīgha Nikāya*, PTS

MN *Majjhima Nikāya*, PTS

H 韓國佛教全書 [*Complete Works of Korean Buddhism*]. Ed.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Complete Works of Korean Buddhism, 14 vols., Seoul: Dongguk Univ. Press, 1979-2004.

T 大正新脩大藏經(*Taisho Daizokyo*)

[Primary Sources]

Dīgha Nikāya

Majjhima Nikāya

Complete Works of Korean Buddhism

Taisho Daizokyo

[Secondary Sources]

Inkyung (2005). The Sudden and Gradual Problem in the Ganhwa Meditation.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23, 1-39.

Jang, E. H. (2015).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Buddhist Meditation Practices- Focusing on Zen, Tibetan Meditation, and Vipassana Movement. *Journal of Humanities*, 72(1), 421-452.

Jun, J. M. (2018). The Compatibility Problem Between the Self-power and the Other-power.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50, 217-245.

Kim, H. G. (2015). The View-points of Seon and Doctrinism & Practice and Enlightenment in Cheonghu-Hujeong. *Pan-Korean Philosophy*, 79, 113-134.

Kim, S. K. (2020). Buddhism's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Post_Religious Age. *Journal of Buddhist Professors in Korea*, 26(2), 141-158.

Kim, Y. T. (2018). The Importance of Late Joseon Buddhist Materials in the Topography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Korea: focusing on the Seon'ga gwigam and the Gisillonso Pilsakgi Hoepyeon.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s*, 58, 141-175.

- Ko, K. H. (2007). A Comparative Study of Seongaguigam by Rev. Seosan with English Poetry.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17, 7-34.
- Ko, Y. S. (2017). Understanding on Seon-Gyo of Cheong-heo Hyu-Jeong. *Bul Gyo Hak Bo*, 79, 133-158.
- Lee, B. W. (2018). A Reconstruction of Ganhwaseon from Viewpoint of Tian-tai's Shi-cheng guan-fa: With Emphasis on Seongagwigam.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42, 211-249.
- Lee, J. R. (2011). A Study on Anger Presented in Vinayapiṭaka and the Healing (Method) through Mettā (Meditation). *Journal of Korean Seon Studies*, 28, 249-282.
- Ogawa, H. (2016). The Reprint of 『Seonga gwigam(禪家龜鑑)』 and its Effect on Japan.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53, 49-80.
- Park, G. N. (2020). A Study of the Seonga gwigam and modern practice.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84, 303-336.
- Shin, B. I. (1982). On Hyoo - jung's Rejection of Canon in Favor of Z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 123-142.
- 강신보 (2003). 선가귀감에 나타난 선과 염불의 조화. *선학*, 5, 123-162. (Translated in English)
- Kang, S. B. (2003). The Harmony of Zen and Buddhist Chant in *Seongagwigam*. *Journal of Korean Seon Studies*, 5, 123-162.
- 고성애 (2013). 박종홍의 한국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동아문화*, 51, 47-67. (Translated in English)
- Ko, S. A. (2013). A Study of Buddhist Thought in Korea by Jong-Hong Park.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1, 47-67.
- 김영배 (1992). 선가귀감 언해본의 서지와 어학적 고찰. *세종학연구*, 7, 3-29. (Translated in English)
- Kim, Y. B. (1992). A Bibliography and Linguistic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Seongagwigam*. *Sejong Hak Studies*, 7, 3-29.
- 김영배 (1992). 선가귀감 언해본 해제. *동악어문학*, 27, 1-19. (Translated in English)
- Kim, Y. B. (1992). An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eongagwigam*.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27, 1-19.
- 김영욱 (2010). 정선휴정.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Translated in English)
- Kim, Y. W. (2010). *Hyujeong: Selected Work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3. Seoul: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김태완 (2011). 간화선 창시자의 禪: 上. 서울: 침묵의 향기. (Translated in English)
- Kim, T. W. (2011) *The Seon of the Founder of The Ganhwaseon*. Seoul: The Scent of Silence.

- 김형효 (2006). 원효의 대승철학. 서울: 소나무. (Translated in English) Kim, H. H. (2006). *The Philosophy of Mahayana by Won-Hyo*. Seoul: Pinetree.
- 김호귀 (2014). 청허휴정 선가귀감. 서울: 하얀연꽃. (Translated in English) Kim, H. G. (2014). *Chunghoe Hyujeong Seongagwigam*. Seoul: White Lotus.
- 손은경 (1977). 선가귀감언해에 나타난 파생접사고찰. *한국어문학연구*, 12, 188-198. (Translated in English) Son, E. K. (1977). A Study of Derivative Affix in the Korean Version of *Seongagwigam*. *Han Kook Eo Moon Hak Yeon Gu*, 12, 188-198.
- 우정상 (1977). 선가귀감의 간행 유포고. *불교학보*, 14, 161-172. (Translated in English) Woo, C. S. (1977). A Study on Publishing and Circulating of *Seongagwigam*. *Bul Gyo Hak Bo*, 14, 161-172.
- 인경 (2006). 화엄교학과 간화선의 만남.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Inkyoung (2006). *Relation between the Huayan Doctrine and the Ganhwaseon*. Seoul: The Institute of Meditation Counseling.
- 인환, 마성, 이자랑 (2011). 계율 연구 논문집. 서울: 정우서적. (Translated in English). Inhwan, Masung, & Lee, J. R. (2011). *The Collection of Discipline Research*. Seoul: Jungwoo Publication.
- 장은화 (2021). 서양의 명상열풍과 맥도날드식 마음챙김. *불교평론*, 85, 231-251. (Translated in English) Jang, E. H. (2021). The Western Meditation Wave and Easy-to-consume-Mindfulness. *Buddhist Review*, 85, 231-251.
- 정병삼 (2020). 한국불교사. 서울: 푸른역사. (Translated in English) Jung, B. S. (2020).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Seoul: Blue History.
- 전재성 (2009). 맛지마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Translated in English) Jeon, J. S. (2009). *Majjhima Nikāya*. Seoul: Korean Pāli Text Society.
- 정성분 (2003). 돈황본 육조단경. 서울: 한국선문화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Jung, S. B. (2003). *The Liuzu Tanjing(Dunhuang)*. Seoul: Korea Seon Culture Research Institution.
- Woman Donga (2004.05.18.). Meditation and How to Breathe. Retrieved 2023.01.19. from <https://woman.donga.com/3/search/12/131417/1>.
- The Buddhist Newspaper (2004. 6. 11.). Great Dharma Assembly with *Seongagwigam* Lecture. Retrieved 2023. 1. 18. fr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24>
- Pāli Dictionary (n.d.). Retrieved 2023. 1. 19. from <https://dictionary.sutta.org/browse/k/k%C4%81ma/>